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17차, 특별 계시, 성경,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관점 평가, 영감의 신학, 영감의 결과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특별 계시, 성경,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에 대한 평가, 영감의 신학, 영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 특히 우리 과정의 정점인 성경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를 제시했고, 이제 영감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를 제안하기 전에 그것들을 평가할 시간입니다. 영감에 대한 견해 평가. 우선, 직관 이론.

직관 이론과는 달리 영감은 종교적 천재들이 영적 통찰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성경 필자들을 통해 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론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천재성을 통해 직접적인 의미에서 신의 활동을 허용할 뿐이며, 그들은 그것을 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성령의 특별한 감독은 없습니다. 영감을 작가들이 글을 쓰기 전에 신이 섭리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BB 워필드와 오래된 프린스턴 학파의 위대한 공헌입니다.

영감은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필자들을 섭리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 점에서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집에서 자랐고, 모세가 실제로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오경,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한 일들 중 일부를 기록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 하나님이 그 필자들에게 큰 종교적 자각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만 성경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근원이시며, 그가 궁극적인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지시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21. 조명 이론.

조명 이론과는 반대로, 성경의 영감은 다른 종류의 영감, 소위 영감과 정도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하신 결과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동적 이론은 하나님과 인간이 성경의 제작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일한다고 보는 데 있어서 옳습니다. 이는 발전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작가가 성경의 제작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나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들의 스타일, 어휘, 개성을 사용하여 그의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실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성경의 생각으로 제한할 때 역동적 이론을 오류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의 말씀을 내쉬고 말씀하십니다(딤후 3:16). 영감에 대한 언어적 이론은 그것이 확인하는 바에 있어서는 옳지만, 불완전합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고 확인하고 받아쓰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둘 다 좋은 것이지만요.

직관 이론과 깨달음 이론과는 달리, 신은 말에 영감을 주며, 그것은 언어 이론이 지지하는 것처럼 옳습니다. 그는 적어도 성경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신의 지시에 의해 말에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드물게, 어떤 부분에서는 몇 가지가 지시되지만, 그렇게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고 확인하고 받아쓰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제작에 대해 더

많이 말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역동적 이론에서 함께 일하는 신성한 인간도 영감에 대한 성경 이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언어 이론은 직관과 깨달음 이론과 같은 이론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지만,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받아쓰기 이론은 성경의 말씀이 신의 말씀이라고 올바르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개신교와 정교회가 받아쓰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의 방식이나 그가 성경에 영감을 준 방식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쓰기 이론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올바르게 확인하지만, 받아쓰기를 영감의 방식으로 잘못 설정합니다. 성경의 수단, 방법, 부분은 받아쓰기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의 다양한 스타일과 어휘,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의 진술, 그리고 그가 연구한 다른 성경적 자료는 전체를 받아쓰는 데에 받아쓰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1절, 4절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읽지 않고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찬하려고 착수한 만큼 누가복음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와 같습니다 . 또한 저는 모든 일을 오래 전부터 면밀히 살펴본 끝에, 각하게 순서대로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각하게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를 연구하였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준비로서 연구에 정신을 적극적으로 쏟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신은 인간 작가들을 통해 성경을 저술합니다. 저는 여전히 받아쓰기 이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만이 아는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며 천사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신정통주의적 관점은 하나님의 개인적 계시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확인하지만, 적어도 네 가지 면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계시가 말로 나타난다는 것을 부인하고 개인적 영감과 언어적 영감 사이에 거짓된 이분법을 설정합니다.

성경, 서사, 시편, 비유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사람들을 그분과의 교제로 이끄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신정통주의는 계시의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언어적 계시에 반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언어적 계시이며, 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정통주의적 관점은 언어적 이론을 풍자합니다. 신은 성경의 일부를 지시하지만, 그는 주로 저자의 경험, 어휘 등을 사용하여 그의 거룩한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일관되게 받아쓰기 이론을 거부하고 대신 신과 인간 저자가 역할을 하는 유기적 영감 관점을 채택했습니다. 요약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적이고 정통적인 성경 관점. 복음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받아쓰기 이론을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과 인간 저자가 역할을 하는 유기적 영감 관점을 채택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것처럼 그들의 글을 지시합니다.

베드로후서 1:21.

셋째, 신정통주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행동과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조지 래드의 성경 신학 책은 하나님의 정기적인 계시를 행동 하이픈 단어 계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지만, 모세의 노래와 이집트 탈출 이후의 미리암의 노래에서 보았듯이, 그는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행위는 스스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재앙과 탈출에 관해 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야훼가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동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들 자신의 모든 신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들 자신의 세계관, 그들 자신의 신을 포함하여 믿었더라도 그것을 볼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행위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십자가 발치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의해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행위는 스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은 둘 다 합니다.

그는 행동하고, 말한다. 그의 계시는 행위, 말, 계시다. 조지 래드가 정확히 옳다.

신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지만, 행위는 스스로를 해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은 자신의 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행동하고 말씀하신다.

영감에 대한 신정통주의적 관점에 대한 네 번째 비판은 이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항상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항상 신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든 얻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이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든 그렇지 않든 발생한다.

네, 주관적인 것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중요하며,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주신 성령은 받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또한 말씀을 받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빛을 비추고, 심지어 구원하는 믿음의 은사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초반에, 아무도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는 입양의 영을 받고, 그 영으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큰 피해를 입힌 책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자는 신자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잭 로저스와 도날드 맥킴은 1999년에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Historical Approach*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그 책 전반에 걸쳐 거짓된 이분법, 개인적 계시와 언어적 계시 사이의 불연속성을 제시합니다.

부끄럽네요. 존 우드브리지가 쓴 책, 존 우드브리지, 그의 제목은 [*기독교 전통에서의 성경의 권위, 무오성, 무오*]인데, 그는 그들에게 매우 잘 쓰여진 답변을 썼습니다.

제한된 무오성은 성경이 역사 텍스트나 과학 텍스트라는 것을 정당하게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옹호자들은 성경이 역사, 과학 및 기타 주제에 대해 비틀거린다고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역사 수업이나 과학 수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종교적인 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을 쓰면서, 신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고, 그는 진실이며, 그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대 과학의 정확성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무오성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무오성을 부인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무오성을 고수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성경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재정의합니다.

이것은 무오성이라는 단어를 오용하여 오류를 가르치고, 성경의 거짓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장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많은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많은 목적을 성취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진리 개념은 충실함뿐만 아니라 사실성, 사실적 정확성, 완전성도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기사, 책에 있는 에세이를 보려면 DA Carson과 John Woodbridge가 편집한 Scripture and Truth라는 책에 있는 Roger Nicole의 The Biblical Concept of Truth를 참조하세요. 아, Rogers와 McKim의 책에 대한 Woodbridge의 비판에 대한 메모를 찾았습니다. John D. Woodbridge의 Biblical Authority, A Critique of the Rogers McKim Proposal, Grand Rapids, Zondervan, 1982, 즉 책에 잘못된 날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날짜가 틀렸어요. Rogers and McKim은 1979년이라고 추측할게요. 1999년은 확실히 아니에요.

우드브리지가 1982년에 응답을 썼다면, 17년 후에 나온 책에 대한 응답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모르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요. 아, 신학 책에 오타가 있네요. 몇 가지를 모아서 주고, 영감의 신학을 제시하려고 시도할 때가 됐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신학을 함께 그릴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역할을 하는 영감에 대한 유기적 관점을 지지합니다. 이 관점은 성경의 공동 저작을 강조하는 *concursus*라고 불립니다.

신과 작가들은 함께 일합니다. 또한 합류라고도 불리며, 미주리 강과 미시시피 강이 합쳐지는 제 고향인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치에 맞습니다. 합류는 두 강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합류합니다. 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함께 작용하여 신의 신적 인간적 말씀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신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하지만, 말씀에는 영감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 혹은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하느님은 성경의 원본 사본인 사본에 직접 영감을 주십니다. 사본은 실제로 성경 책의 원본 텍스트이며 사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또한 그의 섭리로 성경을 수세기 동안 보존하여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사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여 그의 말씀을 생산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했습니다(베드로후서 1:21). 성령은 저자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 교리의 하위 집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성경의 민족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구절 몇 개는 알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히브리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민족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성경을 쓸 때 일반 가정, 어린 소년들의 숙제, 아내들의 세탁 목록,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믿는 학자들은 실제로 잠시 동안 성령 그리스어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고대 아테네의 그리스어, 예를 들어 기원전 500년의 그리스어와 달랐고, 오늘날 아테네 거리에서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령 그리스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주신 특별한 언어입니다.

멍청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어 사본, 그리스어 글, 사본만큼 강력하지도 않은, 세탁 목록, 숙제 목록, 그리고 모든 종류의 평범한 글이 신약 성서와 같은 코이네 또는 공통 그리스어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리스의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은 헤겔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곳에 그리스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도시로 갔을 때 사도행전 14장에서 보았듯이 리코니아어 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리코니아 인인 리스드라 사람들이 공통 그리스어나 코이네 그리스어를 말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약 세계의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인간성은 성경의 신성함이 없다면, 마치 성경이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무가치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간성은 분명합니다. 저자들은 서로 다른 어휘, 스타일,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1~4를 공부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기록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1~3에서 요한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손이 생명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21~33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 처벌,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놀라운 목록입니다. 난파되고, 막대기로 맞고, 고문을 당하고, 세상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글쎄요, 그는 콜로새 밖에서 죽은 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계속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요점은 성경 필자들이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인간을 사용하여 인간과 소통하지만, 그는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저자들이 하나님과는 별개로 자신의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에게서만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20.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데 있어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셨다고 확언합니다. 그는 모세의 교육과 배경을 사용하여 오경을 썼습니다.

그는 바울의 랍비적 훈련을 편지에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섭리를 행사하는 것 이상을 하신다고 확언합니다. 그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필자들이 글을 쓸 때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이자 사람이라고 믿지만, 성육신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유사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덮을 것이고 , 우리가 당신 안에서 낳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두 번. 이 잉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이 그것을 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드, 방식, 모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수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사람이라고 믿지만, 그의 성육신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감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15장, 성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울은 여러분이 성서, 성서, 성서를 알고 있었으며, 그 성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위한 지혜를 줄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를 행하고, 우리에게 신성한 경전을 주시는 방식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은 신과 인간이 함께 일하는 것, 즉, 합일, 합류, 두 강이 합쳐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영감의 결과를 알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는 경전의 언어와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16장을 근거로 성경의 완전한 영감, 완전하고 구두적인, 장황하고 단어와 같은 영감을 확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은 약한 직관과 깨달음 이론과 같은 일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역동적 이론과 같은 아이디어와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인간의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다뤘어요.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말로 된 신의 말씀이에요.

영감은 작가와 그들의 글, 성경의 과정과 결과물, 주로 후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사도들은 언어적 영감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나 글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18. 마태복음 22:32에서 그의 요점은 출애굽기 3:6에 있는 동사의 시제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16에서 바울의 요점은 창세기 12:7의 단수 명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씨앗이라고 했지 씨앗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씨앗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그는 복수 집합적 의미로 사용하지만, 예수가 씨앗,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복수 명사 대신 단일 명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의 글을 지시하십니다. 단어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별개로 단어의 영감에 대해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단어와 별개로 생각을 주신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단어의 전체 목적은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어와 별개로 생각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는 말을 주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말에 집중하고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우리가 생각과 영감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과거? 앗. 미안해요-영감의 결과.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시겠어요? 실례합니다. 이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전체입니다.

미안합니다. 영감의 결과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과는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권위가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무오하고, 올바르게 이해되었으며, 충분하고, 명확하며, 유익합니다. 우리는 다음 몇 강의에서 이 중요한 사상을 차례로 다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고, 무오하며, 충분하고, 명확하고,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에 칼 FH 헨리를 언급했는데, 그는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글쎄요, 그에 대한 이 간단한 설명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헨리의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헨리는 1913년부터 2003년까지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복음주의를 이끈 미국의 복음주의 침례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 간의 학문적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복음주의 신학 협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를 위한 학자적 목소리이자 자유주의 기독교 세기에 대한 도전으로서 Christianity Today의 창립 편집자였습니다. 1978년 그는 성경 무오성에 대한 시카고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1983년에 가장 유명한 작품인 6권짜리 *신, 계시, 권위를 완성했습니다*. 칼 헨리의 말을 인용하여 영감을 받은 결과 성경이 바로 신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용문, 신의 계시는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의미 있는 말로 전달되는 합리적인 소통입니다.

즉, 개념적 언어적 형태로. 모든 신성한 계시에서 중재하는 주체는 영원한 로고스, 즉 예수, 선재하고, 성육신하고, 지금은 영광을 얻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내용과 형태 모두에서 독특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민족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독특한 구원 행위로 외부 역사 안에서도 구원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를 들어, 탈출, 교회 등.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개인적 화신인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의 근원과 내용은 수렴하고 일치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단순히 내면의 신성한 권위를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으로 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4가지 이유로 확인합니다. 첫째, 성경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동일시됩니다. 그것은 신성한 기록입니다(디모데후서 3:15).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쉬신 것입니다(16절).

그것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2. 그것은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4.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지 않지만, 디모데에게 그가 이미 구약에서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시편 19, 7-11과 같은 본문은 성경이 주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며, 좋은 효과를 위해 반복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공부할 때 시편 19, 1-6을 이전에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 19:7-11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특별 계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와 다윗이 둘 다 합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9:7, 주님의 법은 완벽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되살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아마도 그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되살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구약에서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증거, 여기서 성경의 또 다른 단어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단순한 사람은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도 지혜롭게 만듭니다.

주님의 계명은 성경의 또 다른 동의어로, 옳고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으로 순수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글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놀랍게도 그들은 율법, 선지자, 그리고 글에서 정기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약성서의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손을 더럽히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성경의 동의어이거나 성경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깨끗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자질은 계속해서 나타나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규칙은 참되고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그것들은 금 보다 더 바람직하고 , 많은 순금보다 더 달콤하며, 꿀과 벌집의 물방울보다 더 달콤합니다.

저자 데이비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과 소유물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달콤합니다.

고대인들은 꿀 때문에 단맛을 알았죠. 게다가 그들은 당신의 하인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유용성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고, 바로잡음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미 시편 19편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종은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큰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의 삶에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들을 정화하고, 인도하고, 경고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그의 선한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성경이 그분으로부터 영감을 받도록 저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20, 21, 디모데후서 3:16. 이것은 역동적이고 언어적 영감입니다.

성령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행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전달하고자 의도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영에 의한

행위와 그 결과로 생긴 텍스트의 본질을 모두 말합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를 위해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편 19편에서, 위에 인용한 것처럼, 우리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의 동의어인 주님의 율법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저자는, 다윗은, 그것이 무엇을 성취하는지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의 동의어로, 그 유용성, 목적, 율법, 증거, 계명, 계명,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칭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확실하고, 옳고, 순수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되고,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되살리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유용성에 대해 가르쳐 주는 아름다운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설명어인 이러한 표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삶을 새롭게 하고, 지혜를 가져오고, 기쁨을 키우고, 진실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축복으로 이끕니다. 넷째, 예수와 사도들은 원래 그에게 기인하지 않은 많은 구약성경의 진술을 하나님께 기인합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이것을 다루고 영감의 다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특별 계시록, 성경, 영감에 대한 일곱 가지 견해에 대한 평가, 영감의 신학, 영감의 결과입니다.